

오피니언

11

사설

징벌보다 교육 혁신이 먼저다

최근 대학가 온라인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들이 AI를 활용하는 빈도나 범위를 살펴봤을 때 AI를 활용하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다. 오히려 징벌 대책 등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AI가 대학 교육 환경 전반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규정을 강화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 교육과 평가 방식에서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권 주요 9개 대학의 학칙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AI 기반 부정행위는 기존 부정행위의 범주만으로 규정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리학교 또한 교수학습개발원이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빠르게 변

화하는 AI 환경 속에서 ‘교수 재량’에 기초한 운영만으로는 새로운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이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기보다, 현재 대학 전반의 교육·평가 체계가 AI 시대에 맞춰 재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현상에 가깝다.

AI 시대에 부정행위 대응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정이 아무리 촘촘해도, 평가 방식 자체가 AI 활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평가 방식이 AI 환경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구성원 간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다수의 교육 전문가는 ‘금지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구조 중심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토론형 평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기반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은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동시에 학생의 역량을 더 정확

“

대학의 역할은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학습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

하게 반영할 수 있다.

AI는 이미 대학 교육의 중심 도구가 돼 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학 역할은 학생들에게 AI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학습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기준 제시, 대학 차원의 일관된 가

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수업 방식 자체를 AI 시대에 맞춰 재구성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는 “이제 AI에게 ‘잘 물어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과정 속에서 필요한 맥락에 맞게 물어보는 등의 올바른 AI 활용안을 앞으로 대학 교육이 제시해줘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시점 가장 필요한 것은 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이다. AI 기반 부정행위는 물론 학생 차원에서의 윤리 문제도 있지만, 교육 방식의 변화에서의 문제도 크다. 우리학교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AI 시대의 교육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졌다.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대학의 경쟁력과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세시봉

2화를하려면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한양대와의 스포츠 교류전, 제1회 ‘더 라이언 매치’가 끝났다. 약 300명의 한양대 학생이 우리학교 국제캠퍼스를 찾았다.

스포츠 교류전은 교내 구성원들에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양시키기에 제격이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라이벌전 ‘연고전’은 그들에게 내적으로는 정체성이자, 외적으로 자랑거리다. 60년 전통의 연고전을 당장 따라잡을 순 없겠지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내년에 제2회 대회가 열려야 한다.

‘오픈빨’에 끝나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고 싶다면 마케팅·브랜딩 노력이 필요하다. 라이언매치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실정에 맞는 기획과 홍보는 필수적이다.

체대 학생회와 운동부 프런트는 타과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 농구’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야외에서 열린 축구경기 중엔 푸드트럭을 설치하기도 했다. 초대 대회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가장 신선한 장면은 농구·축구 경기 중 학생들로 가득한 선승관과 필드하키장이다. 평소 U-리그 경기보다 관중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축제가 스포츠와 결합했을 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성과다.

내년엔 올해와 다른 점도 있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명분에 그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라이벌 구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90분 동안 공만 차고 끝나는 것으로 이목을 끌 수 없다. 야구 규칙을 잘 몰라도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있는 것은 경기 외에도 즐길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 취향에 맞게 구성한다면 제2의 연고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내년에도 열린다면, 한양대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보다 우리학교의 영향력이 적을 수 있지만, 함께 대회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 내년엔 올해보다 멋진 제2회 ‘더 라이언 매치’가 열리고, 수십 년 뒤에 도 최강 사자를 가리는 역사가 이어질 길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건강한 경선을 위해

경선의 그림자

하지연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캠 총학생회 후보자 토론회가 3년 만에 복수의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후보자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한 경선의 장점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감정적 갈등과 온라인 왜곡 여론이라는 한계 역시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일부 질의의 방향과 토론 방식은 경선 본연의 가치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1부에 진행된 양 측 후보자 자질 검증 선본 공약 점검은 어떤 공약이 현실적인지 비교하고 후보의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선의 이점을 보여주는 자리다. 그러나 ‘KnowHow(노하우)’ 선본은 ‘KHU:EST(퀘스트)’ 선본의 대운동장 잔디화 공약을 묻는 과정에서 “구체적 추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퀘스트 선본은 “학생 요구가 지속돼 추진 근거가 있다”는 원론적 답을 내놓으며 논점이 흐려졌다.

감정적 발언이 오가는 순간도 다수 존재했다. 퀘스트 선본이 노하우의 매직패스 도입 실효성을 묻자, 노하우는 “이미 2022년 ‘경희불라썸’에서 도입된 방식인데, 현 총학 중집장으로서 인지가 부족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경쟁이 감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토론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에브리타임’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특정 후보자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거나, 특정 선본 참모의 SNS 프로필 사진을 왜곡해 갈등을 조장하는 글이 퍼져나갔다. 이는 사실 관계를 흐리고 온라인 익명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방 여론전이다.

경선의 의미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검증을 통한 민주적 선택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회가 감정적 공세가 아닌 정책 중심의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후보자 개인을 공격하거나 허위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경선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와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만평 토론회는 감정적 갈등과 온라인 왜곡 여론을 남겼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장 하지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